



www.at.or.kr

대만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3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3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대만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2. 음료류 (과채 주스)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3. 면류 (라면)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4. 주류 (민속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민속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5. 제과류 (비스킷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6. 소스류 (조미료)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조미료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대만 달러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3월 21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36.7원

1~3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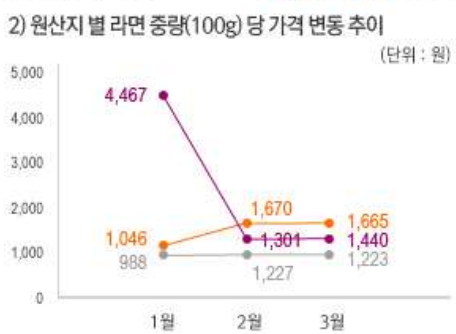
1.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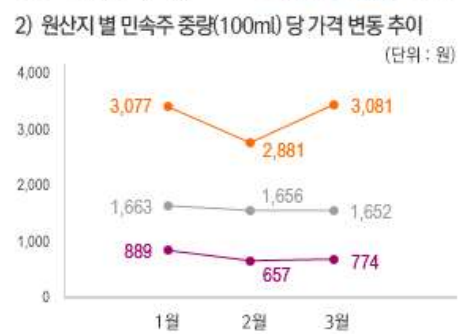
2. 음료류 (과채 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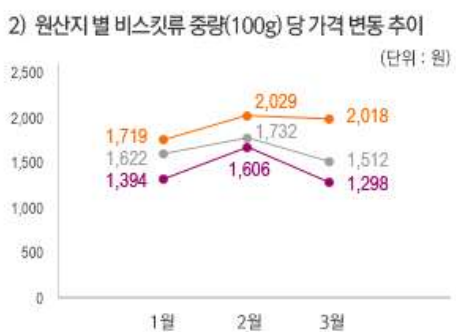
3. 면류 (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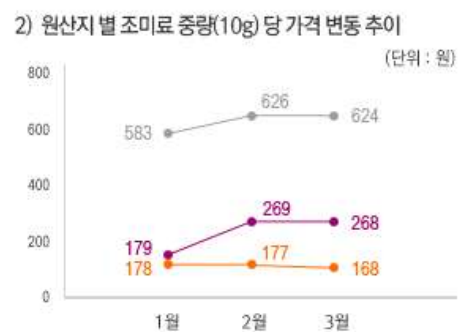
4. 주류 (민속주)



5. 제과류 (비스킷류)



6. 소스류 (조미료)



제과

가격 상승 ▲ 수요 상승 ▲ “ 수입가격 상승했지만 Market O는 여전히 인기 ”

농심, 해태, 오리온社 등 한국 유명브랜드 제품을 주로 수입 및 유통하는 Shing her(星禾国际)회사의 Mr. Wang에 따르면,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과자 수입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리온社의 Market O 제품은 수입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오리온社 Market O는 수년간 대만 시장에 판매되고 있으며, 인지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판매업자들은 Market O가 이미 인지도가 높고, 판매율이 높은 제품이지만 프로모션 행사를 다수 진행할수록 판매량이 배로 늘기 때문에 최대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오리온社 Market O]

주류

수요 상승 ▲ “ 한류 영향으로 소주 판매량 상승중 ”

음료 및 주류를 주로 수출입하고 있는 PAICHI(百棋貿易有限公司)의 Mr. Wang 인터뷰의 따르면, 대만은 지속적인 한류의 영향으로 진로 소주의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Mr. Wang은 지난해 한국에서 과일 맛 소주 출시 후, 일반 소주에 비해 낮은 도수와 달달한 과일 맛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은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과일 맛 소주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소비자들처럼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대만 소비자들에게도 반응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 진로 소주]

수요 상승 ▲ “ 광고 모델에 따라 맥주 수요 증가 ”

1993년부터 설립하여 대만에 한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PAICHI(百棋貿易有限公司)의 담당자 Mr. Wang은 작년 한국에서 반영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대만 시장에 진출 후 한류 열풍이 다시 한 번 불어 HITE맥주의 수요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거래처인 공급업체가 한국산 맥주 판매가격을 올려 소매가격을 소폭 상승시켰다. 그러나,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주인공 송중기가 HITE 맥주 광고 모델로 발탁되면서, HITE맥주는 고공행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HITE 맥주]

● 신선식품

수요 감소 ▼ “ 계절성인 인삼 제품은 수요 하락 ”

1972년 설립하여 주로 인삼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King Of Ginseng(參大王)의 Mr. CHENG 인터뷰 결과, 인삼의 수요량 변화는 계절과 경기에 따라 큰 폭이 있다고 밝혔다. 인삼차는 특성상 섭취 시 열이 쉽게 오르기 때문에, 여름의 경우 무더운 날씨로 판매량이 부진하고, 겨울의 경우 추워서 찾는 사람이 많아져 수요량이 높다고 전했다. 겨울이 지나고 점차 온도가 오르면서, 계절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해당 사는 인삼의 수요가 높을 때는 월 1회 수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요가 하락할 시기에는 3~4개월 주기로 1회 수입을 진행하고 있어 구매량의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인삼]

수요 감소 ▼ “ 수입산 과일 명절기간에만 수요가 높음”

현재 대만에서 한국산 배, 사과, 메론, 딸기 등의 신선과일 위주로 수입하고 있는 Chang Lung Agriculture(長龍農產股份有限公司)의 수입판매부 사원에 따르면, 판매량과 가격은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어 매달 상이하다고 밝혔다. 설날 혹은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특수한 기간인 만큼 공급 및 수요량에 급등한다고 전했다. 다만, 명절 기간을 제외하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의 과일 가격은 현지산 과일 가격보다 비교적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저렴한 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선 과일]